

01 교회소식

순수복음방송 GCN 신규 프로그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GCN방송이 가을 개편을 맞아 마련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불뱀과 십자가

모세가 뜻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03 기획특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권능 사역~ 세계 향해, 영혼 향해!

이삭TV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전하는 파키스탄 카산 조지 목사 와 사역과 권능이 회복되는 권능을 체험한 박명숙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762호 2016년 11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삶 속에 파고드는 말씀, 하나님 사랑과 권능!”

GCN방송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순수복음방송 GCN방송(www.gcntv.org)이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GCN방송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위한 각성의 메시지, 「마지막 때」

이 프로그램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금식과 더불어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 받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거 이후 7년 대한난의 참상, 14만 4천의 전도자와 두 증인, 이스라엘 회개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붕괴 등을 그래픽과 삽화,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흡인력 있게 설명한다. 전 세계 도처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요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증시켜 줌으로 시청자들을 다시 한 번 영적으로 일깨워 줄 것이다. 매주 금요일 0시 30분에 방영되며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재방송으로 볼 수 있다.

성경 예화 통해 심비에 새겨지는 말씀 무장, 「말씀스페셜」

성경 인물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다룬 '선'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영적인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사랑장', 그리고 성결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마음 받을 개간하자' 등 이재록 목사의 주제설교 시리즈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특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일러스트로 표현해 말씀을 더욱 구체화시키며 영적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하여 시청자들의 성결과 믿음 성장을 돕고 있다. 매주 월요일 0시 30분에 방영되며, 재방송은 당일 오후 4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8시에 한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권능의 역사, 「권능스페셜」

교회 개척 이래 34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펼치신 권능의 역사들을 모아 주제별로 소개한다.

날씨와 기온의 변화를 비롯해 각종 기사와 표적, 질병 치료, 자연 재해나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은 간증 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자양분을 얻게 된다.

또한 역사적인 권능의 현장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인터뷰와 전문가의 해설, 풍부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매주 수요일 0시 30분에 방영되며, 당일 오후 4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재방송으로 볼 수 있다.

GCN방송은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다채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담아 위성과 케이블, 인터넷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하고 있다. 이러한 GCN방송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영육 간에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은 물론, 개종하는 등 시청자들의 은혜로운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4면 참조).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모세가 놯뱌를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뱌에게 물린 자마다 놯뱌를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9)

“모세가 광야에서 뱌를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5)

불뱌와 십자가

뱌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어 불뱌들이 나타났고, 결국 백성들이 해를 입었던 것이지요 (민 21:5~6).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뱌이라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불뱌’는 원수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미혹한 뱌에게 “종신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하셨는데 ‘흠’은 ‘흠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 사단의 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고나 질병,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근본 원인을 알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때는 시험 환난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일 5:18).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 앞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자복하여 죄의 뱌를 헐고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도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신 8:15~16).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연단을 잘 받으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하신 하

나님을 신뢰하므로 끝까지 인내하며(약 5:11) 감사할 때라야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놯뱌를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뱌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린 놯뱌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놯뱌를 보이지 않고 권능만으로 낫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치료받으라.”는 말씀만 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커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상을 주셨던 것이지요. 자신들을 해롭게 한 불뱌의 형상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불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섭리

“모세가 광야에서 뱌를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놯뱌로 불뱌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뱌는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데, 장대에 달린 놯뱌를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곧 원수 마귀 사단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범죄한 아담과 후손들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원수 마귀 사단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은 오히려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형벌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영계의 법칙을 원수 마귀 사단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원수 마귀 사단은 그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천 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은 물론, 응답과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달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개 언어로 출간된 전세계인의 필독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URIM BOOKS
www.urimbooks.com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善)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세 가지 항목

빛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려면 진리로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한다.
사람 편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선을 이뤄
보석같이 곱고 아름다운 참 자녀로 나오기 바란다.

POINT 1

자기 정당화를 버려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은 부지런히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알면서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핑계 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교회, 가정, 직장 등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육 간의 모든 일을 영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바쁘니까. 중한 사명을 맡았으니까. 저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분야를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한다면 이는 자기 유익에 맞춰 진리를 이용하는 간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설령 주의 일로 인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분야에서 두세 가지밖에 행하지 못했다 해도 마음 다해 사랑과 섬김으로 행한다면 상대방이 그 마음의 진실을 느끼므로 서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단이 송사할 수 없다.

과연 자신이 정말 바빠서 도저히 더 내어줄 수 없는지, 아니면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것인지, 마음이 더 가는 일에만 힘을 쏟고 다른 일은 제쳐놓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 봄으로 범사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좇으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버려야 할 것이다.

POINT 2

교만을 버려야 한다

사울은 원래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왕이 되어 섬김을 받으니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왕좌를 마땅히 자기 것이라 여기며 권세를 휘두르는 데 익숙해졌다. 사무엘 선지자조차 두려워할 지경이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제사장의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는 무서운 만행을 저질러도 주변에서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교만은 참으로 교묘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버린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성결을 이루기 전에는 언제든지 교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니 자신에게 교만이 있다고 인정하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뽑아버려야 한다.

가령, 각종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분야의 업무도 잘 알고 있다면 그동안 자신이 헌신해 온 것만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의 할례가 더딘 줄 모를 수 있다. 불편함, 서운함 등의 감정이나 판단, 정죄 같은 죄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눌러 놓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직분이 높고 연륜도 있다 하여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한다.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교만은 질서를 어기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총무가 일꾼 중 한 사람에게 행사 장소를 분홍색 천으로 장식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꾼은 흰색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하지만 그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일꾼이 임의로 회장한테 가서 허락받아 일을 진행한다면, 질서를 어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간사함까지 동원된 것이다. 그런데 회장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항상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벧 2:3 ; 벰전 5:5).

POINT 3

자기 보기에 열심을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 단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더불어 충성하고, 항상 화평함을 좇으며 사랑 가운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자기 보기에 열심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과 열정은 뜨겁지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한다. 가령 처음 직분을 맡아 행정적인 일에 능숙하지 않은 회장을 경험한 많은 총무가 도와주면서 불편해하거나 임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 회장이 할 일을 자신이 다했다는 자긍심, 혹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은근히 찌르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아랫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 짜증 섞인 말도 나오고 상대를 찌르는 말도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만 하고, 자신의 사명 이상을 감당하고 있

기 때문에 ‘나는 충성 되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자신의 열심 속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서 화평을 깬다거나 질서를 어겼다는 지적이라도 받으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 방관하기도 한다. 더구나 총회에서 낙선이라도 하면 자신이 선하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인가?’ 하고 서운해하며 열심 내던 모습마저 변질된다.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였다면 결코 변질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성숙해진다. 사람 보기에 열심이였기에 변질되고 인정도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 속에서 나온 열심이었던 것이다. 과연 자기적인 열심인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는 열심인지 점검하여 참된 선의 마음을 이루기 바란다.

November 11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11.6~ 11.1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49-50 ■ 성경적 결혼관 1
- 창세기 강해 1-3 ■ 일곱교회 1-6
- 요한일서 강해 13-18
- 요한계시록 강해 112-115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믿음을 축량하시니 1-4
- 마음발을 개간하자 6-7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3 (이수진 목사)
- 곧은 마음 3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59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21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3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5 (김수정 목사)
- 옫의 연단, 마음의 연단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5
- 내 마음의 찬양 33 ■ English 12
- 창조와 과학 18 ■ 모두 드려요 49

해외선교회 및 신규 프로그램

- 마지막 때 1 ■ 권능 스페셜 9
- 말씀 스페셜 9 ■ 회상 15
- 에스토니아 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5년 전부터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아 답답하고 대화할 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20년간 전화국에서 교환원으로 일하면서 헤드셋을 장시간 사용한 것으로 인해 노화되면서 기능이 저하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실명된 눈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꼭 믿음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저는 스물두 살 때 자치기 놀이를 하는 동생들 곁을 지나가다가 날아오는 막대기에 왼쪽 눈을 맞아 망막이 파열되었고 그 뒤 완전히 실명되어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생활하던 중 오른쪽 눈마저 안질에 감염되어 시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1995년에 열린 '제3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실명된 왼쪽 눈과 시력이 약화된 오른쪽 눈을 동시에 치료받는 체험을 하였지요.

그러니 청력 저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자 2012년 9월, 만민기도원 환자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복님 원장님께서 100일간 작성하여 다니엘절야 기도회와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면서 감사일기를 적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마음

“권능의 기도로 실명된 눈이 보이고 잃어가던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박명숙 권사 (60세, 2대대 13교구)



중심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지요. 어느덧 제 마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청력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의가 채워지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지요. 예배 때마다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기도를 쌓은 결과, 올해 초부터는 잘 알아듣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과 불편함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심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지요.

어느덧 제 마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청력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의가 채워지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지요.

예배 때마다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기도를 쌓은 결과, 올해 초부터는 잘 알아듣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과 불편함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권능의 대폭발로 역사된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첫날 은사집회 때 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이후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귀경차량에 올랐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왼쪽 귀가 '뽕' 뚫리며 엔진 소리 같은 것이 크게 들리더니 얼마 후 오른쪽 귀도 마찬가지로 '뽕'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통에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얼떨떨한 제게 옆 좌석에 있던 남편이 “귀 치료받았네요!”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지요. 그 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조차 민감하게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청력이 좋아져 이제는 방 안에 있어도 가족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더욱이 저는 교구 조장으로, 남편 권태봉 장로님은 남지역장으로, 딸 권아강 자매는 예능위원회 파워워십팀으로 충성하며 아들 권일강 성도 내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기쁜지요. 늘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삭TV 시청자들의 치료받고 구원받은 간증이 넘칩니다!”

저는 파키스탄 위성방송인 이삭TV 사장 안와 파잘 목사님을 도와 교회에서뿐 아니라 방송 사역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 성회가 열릴 때 이를 주관하여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요.

이삭TV는 위성이나 케이블 방송, 인터넷 TV를 통해 미국, 캐나다, 영국, 아시아,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 73개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이삭TV 어플과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 쇼, 데일리쇼, 설교, 찬양 프로그램, 굿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6시, 한 시간씩 방송을 하는데 여느 목회자들과 달리 영적인 말씀뿐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하루에 20~30개, 한 주에 200개 이상의 간증이 저희 쪽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어떻게 응답과 치료, 축복 등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받은 뒤 8년간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이 임신을 하였고 심장병, 종양 등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더욱이 무슬림들도 방송을 통해 많은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고 있지요.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저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에 직접 가서 체험해 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6~28일까지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님의 초청으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한 은혜와 감동이 있음은 물론 성도들의 환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종 예배와 기도회, 모임 등에 참석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파키스탄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권능이 베풀어지는 사역의 현장에 와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여 꿈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놀라운 권능으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재록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카산 조지 목사 (35세, 파키스탄 이삭TV)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